

# Be Like Water

경계를 거부하고, 흐르고, 스며들고, 증발하며 형태를 바꾸는 물, 그리고 퀴어함. 흑인, 여성, 퀴어. 미란다 포레스터 Miranda Forrester는 자신의 경계를 물처럼 흐리고 부드럽게 넘나든다. 그의 아시아 첫 개인전이 파운드리 서울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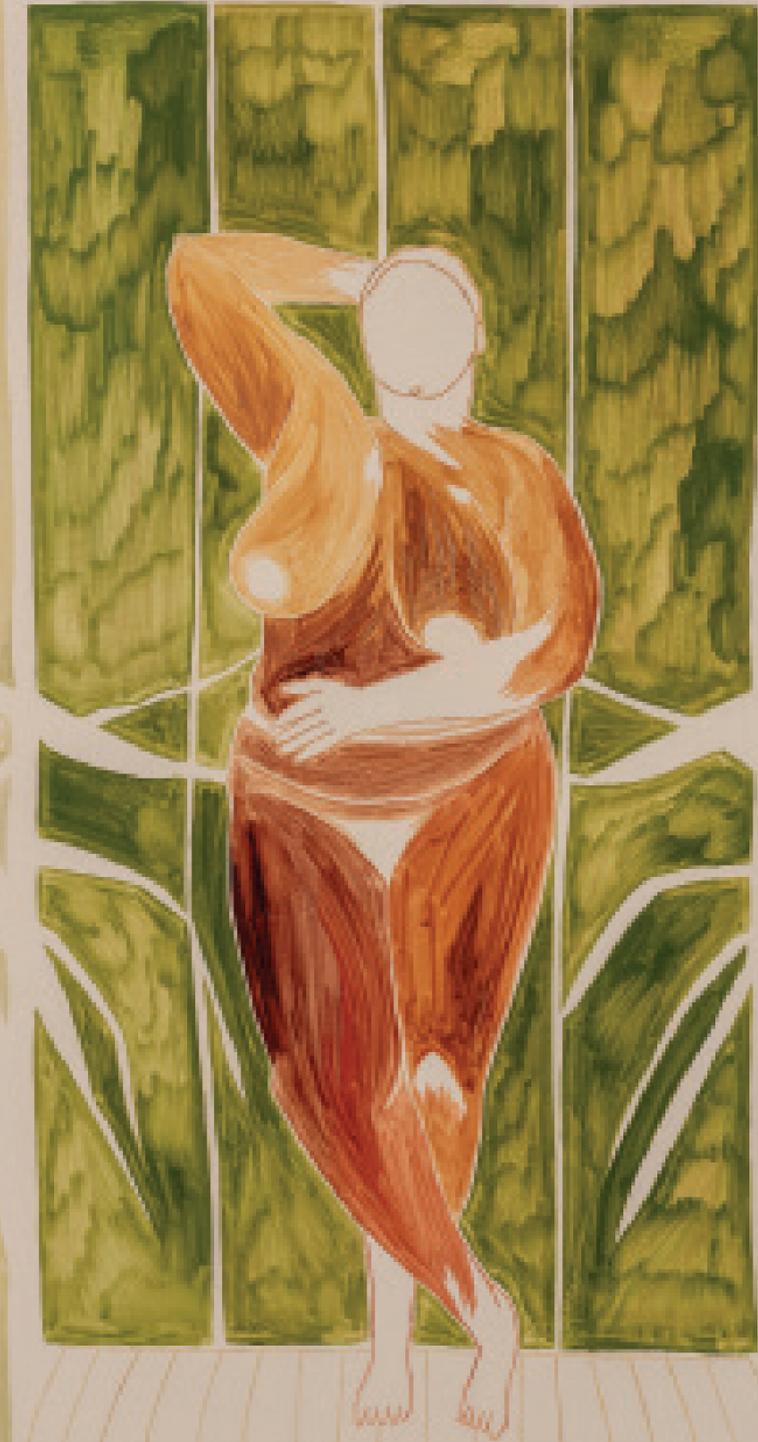


Miranda Forrester, 'Freefall', 2025, Oil and gloss on polycarbonate and limewood frame, 142 X 183cm  
© Courtesy of the artists, Tiwani Contemporary, London and FOUNDRY SEOUL, Seoul, Photo by Deniz Guzel

text KWON SOHEE SOHEE art PARKJIMIN GEEMEE



© Courtesy of the artists, Tiwani Contemporary, London and FOUNDRY SEOUL, Seoul, Photo by Bernice Mulenga



Miranda Forrester, 'Radiant', 2025, Oil on canvas, 183 X 142cm  
© Courtesy of the artists, Tiwani Contemporary, London and FOUNDRY SEOUL, Seoul, Photo by Deniz Guzel

**한국에 오기 전 이 질문지를 먼저 받게 될 거다. 지금 어떤가.**

주변에서 서울을 역동적이면서 활기찬 도시라고 이야기하더라. 새로운 도시를 탐험하고, 한국 관광객과 직접 만날 수 있어 기대된다. 서울에서 첫 개인전을 하게 된 건 정말 영광이다. 그리고 파운드리 서울과 함께할 수 있어 더욱 기쁘다.

**작업에서 경제함과 긍정적 에너지가 단번에 느껴진다. 자기소개는 어떻게 하는 편인가.**

고맙다. 나는 꽤 차분하고 단단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많은 편이다.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걸 좋아하고, 그 따뜻함과 긍정적 에너지를 작업에 담으려고 한다. 특히 인물을 따뜻하게 그리는 것과 흙이나 나무 등 자연의 색감을 그대로 표현하는 데 관심이 있다. 유동성, 진정성, 그리고 날것 같은 느낌. 이것들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도 닮았다.

**강렬한 색과 넓은 여백이 공존하는 구성이 독특하다고 생각했다.**

가능한 한 적은 붓질로 많은 것을 표현하고 싶다. 가끔은 빈 공간에서 오히려 강렬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다. 그건 내게 큰 동력이 된다. 작업하면서 얼마나 많은, 혹은 적은 정보를 담을지 끊임없이 결정하고, 그 균형을 찾는 과정이 작업 중 가장 시간이 많이 드는 부분이다. 보통 모델을 드로잉하거나 여행 중 찍은 사진, 매혹적인 공간·인테리어를 참고해 작품 시리즈를 시작한다. 그림을 시작할 때는 인물을 먼저 그리는 편인데, 인물이 작품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색감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나머지 부분을 채워나간다.

**인물의 얼굴은 대부분 잘 묘사되지 않는다.**

인물의 개별적 정체성보다는 보편성에 더 관심이 있다. 내게 그림 속 얼굴은 '누구'인지보다 그 존재가 '무엇'을 표현하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나는 얼굴 묘사를 흐리게 함으로써 보다 보편적이고, 친숙한 존재로 느껴지게 하고 싶다. 그런 모호함이 내게는 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관객이 또한 자신을 투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관객이 내 그림 속, 거기 있는 몸이 될 수 있다고 느끼게 하고 싶다.

**그러한 여백과 흐릿한, 모호한 표현이 이번 전시 주제인 '물'을 연상시키는 듯하다. 의도적인 선택인가.**

여백은 개방감과 유동성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물과 닮아 있기도 하다. 물처럼 변화하고, 반사하며, 고정되기 어렵다. 나는 물과 쿼어함의 관계에 관심이 많다. 경계를 거부하고, 흐르고, 스며들고, 증발하며 형태를 바꾸는 물의 특성은 쿼어의 정체성과 매우 닮았다. 둘 다 고정된 범주를 거부하고, 다양성을 포용한다는 점에서 말이다. 그런 '틀이 없음'에는 해방감이 있고, 작업 속에서 모호함과 부드러움, 그리고 형태의 해체를 통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개인적으로 물은 어떤 의미인가.**

'쿼어 친밀감'의 긴장감과 섬세함을 포착하는 영화, 문학, 음악적 풍경에 매료되곤 한다. 오랜 시간 내게 영감을 준 레퍼런스 속에서 공통적으로 '물'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게 물은 경계이자 신체가 해방되고, 정체성이 변화하며, 욕망이 제약 없이 흐르는 중간 지대다. 그것은 변화와 새로 태어나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이 내가 작업에서 탐구해 온 주제와 깊이 맞닿아 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서울이야말로 이 주제를 탐구하기에 완벽한 장소라고 생각했다.

**작품을 가만히 관찰하며, 드로잉이지만 '사진' 같다고 느꼈다. 렌즈를 든 이가 바라보는 듯, 그리고 반대편에서 이를 응시하거나 신경 쓰는 듯한 구도가 인상적이었다.**

흥미롭다! 대부분 실제 모델을 보고 드로잉하지만, 배경과 설정의 상당수는 주로 여행에서 찍은 사진을 참고한다. '바라봄'과 '관찰'이라는 행위, 그리고 내 회화에서 어떻게 '관음'이 작용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다. 특히 누군가의 시선을 조용히 붙잡는 순간, 누군가 나의 주의를 사로잡는 고요한 순간을 포착하는 데 흥미를 느낀다.

**그런데 인물 중에서도 여성만 그리는 것 같다.**

나는 오직 여성, 트랜스, 논바이너리 인물만을 그린다.

**나체 아닌 인물을 찾기 어려운 것 같기도 하다.**

피부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피부와 신체, 근육, 머리카락, 질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늘 관심이 있다. 나 또한 우리가 아무것도 입지 않았을 때 가장 솔직한 상태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흑인 여성과 논바이너리 인물이 편안하고 자신감 있는, 자신의 몸과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예술 작품에서

흑인 여성의 누드가 성적 대상화가 아니거나, 백인 남성의 시선이 아닌 방식으로 그려진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다. 그렇기에 나와 다른 흑인 여성, 그리고 논바이너리 인물을 진정성 있게 표현하는 것이 내겐 매우 중요하다.

**동감한다. 특히 여성의 몸에 관해서는 아직 누군가의 시선이 갖는다.**

**동양 문화권에서 자란 여성인 나는, 여성의 몸에 관한 한 여전히 색안경과 편견, 그리고 환상을 체감하고 있다.**

흑인 여성도 다르지 않다. 여성은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몸을 감시하고, 평가하며, 개선하고, 세밀하게 들여다보도록 길들여져 왔다. 나는 내 그림 속에서 여성의 몸이 더 평화롭게 공존하고, 삶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단순히 전시된 몸이 아닌 어떤 환경 안에 존재하는, 살아 움직이는 여성의 몸으로 느껴진다. 더욱 실존하는 듯 느껴지는 이유는 모델과 주변 환경이 특히 생생하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다.**

이 시리즈는 쿼어의 자유와 어떤 명료함이 갖든, 사적인 공간을 탐구하는 작업이다. 이전에는 주로 실내 공간을 그렸지만 이번 작업에서는 실외, 그러니까 풍요롭고 평화롭고 개방적인 외부 공간으로 시선을 옮겼다. 흑인 여성이 가장 너른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는 '쿼어 유토피아'의 감각을 품은 환경을 떠올렸다. 고평함과 휴식이 머무는, 그런 인물을 둘러싼 공간은 감정의 일부로서, 조용한 해방감을 느끼게 한다.

**작가는 쿼어 여성이기도 하다. 자기 정체성이 갖든 작업은 스스로를 어떻게 변화시켰나.**

나의 회화 작업은 나 자신과 정치적 입장, 신념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고한 감각이 있었고, 회화는 그것을 표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예전 작업을 돌아보면, 내가 작업하는 데 동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 흥미롭다.

**작가는 정체성뿐 아니라 실질적 가족제도, 여성의 모성 같은 주제로도 작업하고 있다. 개인적인 경험과 관련이 있는 부분인지 묻고 싶었다.**

모성은 나의 회화 작업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여전히 쿼어 가족에 대한 오해와 적대심이 많기에, 나는 나의 경험이 실제로 어떠한지 작품에 담고자 한다. 내겐 변혁적이고, 급진적이며, 깊이 있는 긍정적 경험이었다. 나는 '단일모성주의 monomaterialism'를 공부해 왔다. 단일모성주의는 한 어머니를 두고 한 명의 여성이 생물학적·사회적 재생산의 모든 부담을 떠안도록 하는 지배적 이데올로기다. 이성애적 핵가족 체계 안에서 가부장제, 이성애 규범, 자본주의, 유럽 중심주의에 의해 형성된 구조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역사와 다양한 문화 속에 존재해 온 다른 형태의 모성 모델을 지워왔다. 그래서 나는 페인팅을 통해 다른 시각, 즉 다중 모성 polymaternal을 전제로 한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동의, 확장된, 그리고 해방된 이 모성은 대안적 가족 구조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쿼어 모성 경험의 중요움을 기념한다.

**개인적 삶에 대한 질문을 해도 될까? 지난 4월에 결혼한 것 같더라.**

**SNS에서 봤다. 먼저 축하한다.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것이 당신의 예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하다.**

고맙다. 개인적인 삶은 공개하지 않는 편이지만, 결혼식만큼은 나누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쿼어적 기쁨, 해방이 가장 마법처럼 빛나던 순간이었다. 아내와 가족, 그리고 이 모든 게 함께하는 삶은 나의 예술 작업에 끝없는 영감을 준다.

**결혼식을 치른 런던은 동성 결혼이 가능한 곳이기도 하다.**

영국은 동성 결혼을 10년 넘게 합법으로 인정해 왔지만, 여전히 '정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성별 지칭이 잘못되거나, 이성애를 전제로 한 상황을 자주 접했다. 많은 사람이 힘겹게 싸워 얻어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국도 곧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 누군가와의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는 매우 중요하니까.

**'평생 주제 삼고 싶은 여성'에 대해서도 묻고 싶다.**

나는 여성성을 다중성의 공간으로 본다. 여성이 스스로 정체성을 정의하길 바란다. 이는 끊임없는 재구성고 상상이 필요한 개념이기도 하다.

**'어떤 여성이 되고 싶은지'는 또 다른가.**

개인적으로는 더 많은 위험과 성장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고 싶다. 예술적 실천과 행위를 새로운 매체로 확장하고, 스스로 변화하고 적응하며 온전히 피어날 수 있도록 내게 여유를 허락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